

광주·전남 폭염 취약성 심각... 예산 등 대책 소홀

함평, 229개 시군구 중 가장 취약 지자체 폭염대책 단기 대응 그쳐 온열질환자 증가 불구 소극 대처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태부족

전국이 해마다 더욱 더워지고, 때아닌 장마성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예측불허의 이상기온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 및 학계에서 발표하는 폭염, 폭우 예상 지표도 갈수록 암울하기만 하다.

전국 각 시도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폭염 대책 등 관련 사업 진행을 고심 중인 반면, 광주와 전남의 이상기온 대책은 '단기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함평의 경우 전국 229개 시군구 중 폭염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지만, 장기 대책 수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14.9도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월'이었다. 평년보다 2.8도 높은데다 종전 최고였던 1998년 4월(14.7도)도 넘어섰다.

5월에는 때 아닌 폭우가 쏟아졌다. 어린날인 지난 5일 광양·진도에는 각각 198.6mm, 112.8mm의 비가 내리면서 역대 5월 하루 최다 강수량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어 일주일 이어 채 안된 11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 전국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아직 장마시기에 대한 전망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여름 장마의 예고편"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올해 장마철인 6~7월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높을 확률을 각각 50%, 40%로 예상했다.

이미 정부부터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행안부는 최근 기상청의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고, 폭염일수 증가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특별교부세) 총 15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그늘막·물안개(쿨링포그) 분사장치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지자체의 폭염피해 예방 사업에 사용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광주와 전남지역의 폭염대책은 단기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원정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팀과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발표한 '사회불안 지표를 반영한 폭염 취약성 평가' 연구를 보면 함평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폭염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실제 함평은 전국에서 폭염 일수가 7번째, 열대야 일수가 3번째로 많았고 노후 주택 비율은 전국에서 5번째, 아동·노인 비율은 전국에서 8번째로 높았으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16번째로 낮았다. **3면에 계속** 노병하·곽지혜 기자

알립니다

제18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세계지질 유산, 무등산을 걷자 6월15일 오전 8시30분

전남일보가 '제18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를 갖습니다. 광주광역시·화순군·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산행은 문빈정사 광장을 출발해 자율 산행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무등산의 풍경을 만끽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며, 등반과 함께 정화활동을 펼치는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무등산의 추억'을 담아가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명 제18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 일시 2024년 6월15일(토) 오전8시30분
- 장소 문빈정사 앞광장(집결)
- 신청기간 2024년 5월13일(월)~6월10일(월)
- 인원 300명 선착순 접수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 참여방법 홈페이지(www.jnilbo.com) 접속,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문의 062-519-0730~1
- 주최주관 전남일보, 전일엔컬스
-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순군, 담양군, 전남대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



시즌 첫 더블헤더 휴일인 12일 KIA타이거즈 팬들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6차전(더블헤더 2차전)에서 열린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민주 국회의장 선거 '추미애vs우원식' 2파전

조정식 의원, 추 지지하며 사퇴
정성호 의원 사퇴... 16일 경선

더불어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선거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12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단일화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4·10 총선에서 나란히 6선 고지에 오른 두 사람은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운동을 펼쳐왔다.

조 의원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대동단결해 총선 민심을 치러내는 '개

혁국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전반기 국회의장직 후보직에서 사퇴한다"며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밝히며 추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같은 날 5선인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